

# 국힘, 선대위 쇄신 후폭풍...“쿠데타” 파열음에 尹-金 결별설도

〈윤석열〉 〈김종인〉

### 尹측 “함께 못가” 손절론...金 “배제? 그런 질문 안하는 게 좋아”

### 중진모임선 ‘이준석 책임론’ 거론...대표 거취 놓고도 내홍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선대위 쇄신 작업에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조차 불협화음을 노출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윤석열 후보 ‘패싱’ 논란을 필두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4일에는 양측 ‘결별설’까지 정치권에 돌았다. 윤 후보가 금명간 선대위 쇄신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별보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전날 선대위 전면 발표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후보와) 미리 상의 없이 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일당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 후보와 선대위 쇄신에 대한 기본적 공감대 정도만 형성한 상황에서 ‘전면 해체’ 수준의 선대위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을 ‘지르듯이’ 발표한 상황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 대해 ‘선대위가 주문한 대로 연기해달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고 한다.

당장 윤 후보 주변에서는 후보의 권위를 손상한 김 위원장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손절론’이 쏟아져 나왔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의 리

더심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어떻게 김 위원장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위원장이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총괄선대본부 중심의 일원화 체제’를 윤 후보에게 요구한 가운데, 윤 후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가 전날 선대위 지도부의 일괄 사의 표명 당시 이미 김 위원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일부에서 흘러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선대위에서 자신을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의 ‘연기’ 표현에 대해선 “연기자와 감독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일각에서 나온 ‘김종인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놀라운 발언”이라며 “전권을 가진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는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분출하는 등 당 내용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당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모임은 대표적인 친윤계인 정진석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윤 후보 지지율 하락 상황에 대한 ‘이준석 책임론’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모임에 참석했던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며 “당 대표 제일 임무는 정권교체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

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윤 후보가 발표한 선대위 인선안을 놓고 김 위원장과 또 불협화음이 생기면 더 이상 같이 못 가는 것이고, 당의 갈등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靑 “집값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

### “다음 정부 물려줄 공급기반 마련 추경, 방역 상황따라 국회가 논의”

청와대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을 두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MBC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정책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음 정부에 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는 205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

련해 “실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방역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손실을) 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최근 방역을 강화한 데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방역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를 따지는 지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최위위”라며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방역강화 조치를 두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경제와 외교안보를 망쳤다’고 한 것을 두고는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겠으나 국민이 이런 성과를 폄하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재명표 영·호남 상생, 초광역경제성장축 공약 제시할 것”

### 강기정 호남 총괄특보단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직할 기구인 호남 총괄특보단장에 임명된 강기정(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이재명표 영·호남 상생 공약과 초광역 경제성장축으로 한 ‘호남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표 영호남 상생 공약 1호가 달빛내륙철도였다”며 호남총괄특보단장으로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제2호 영·호남상생공약은 제 머릿속엔 있는데, 최인호 영남총괄특보단장과 광주·전남·전북 시도당, 후보 진영과 협의해 조만



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영남총괄특보단장인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지역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영호남 공통공약을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그는 “호남총괄특보단장은 호남발전의 비전을 끌어내 정권 재창출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처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비전을 찾고 그것을 정권 재창출에 녹여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지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은 5년 후로 넘기자는 것과 같다”면서 “시·도간 합의해 이번 정부에 제안을 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패착이다. 대선후보 공약에 조금이라도 그림이 그려지면 다음 정부 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법개정안 논의 착수

국회는 4일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

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2>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p>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gt; 9억</p> <p>급매가 -&gt;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li> <li>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li> <li>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li> <li>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li> <li>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li> <li>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li> <li>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li> <li>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li> <li>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li> </ul>	
<h1>010-6670-9800</h1>			